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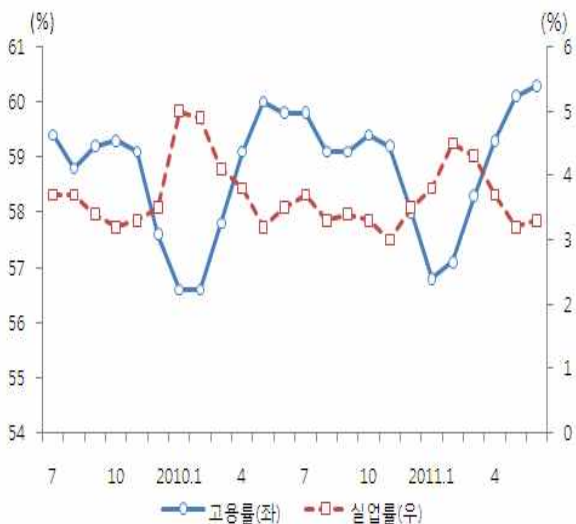
# 6월 고용여건 개선

최 원 선임연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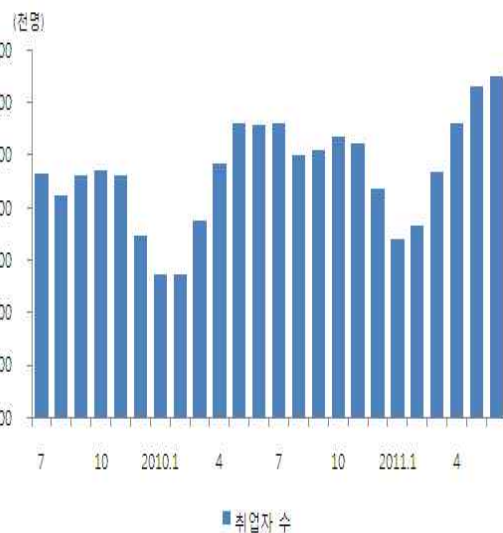
■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1년 6월 취업자 수 증가, 고용률 상승, 실업률 하락 등 고용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됨.

- 취업자 수는 2,475만 명을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47만 2천 명 증가하였으며, 고용률은 60.3%로 전년동월대비 0.5%p 상승함.
- 반면, 실업자 수는 83만 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8천 명 감소함에 따라 실업률도 전년동월대비 0.2%p 하락한 3.3%를 기록함.
  - 5월 OECD 회원국 평균 실업률이 8.1%로 나타났으며, 6월 주요국 실업률도 모두 4%를 상회하고 있어 우리나라 실업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.
  - 청년층(15~29세) 실업률도 전년동월대비 0.7%p 낮아진 7.6%를 기록함.

〈그림 1〉 고용률 및 실업률



〈그림 2〉 취업자 수



■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고용여건이 개선되면서 수출 및 복지 관련 부문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고, 자영업자 감소세와 상용직 근로자 증가세가 이어짐.

- 공공행정 이외 부문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48만 2천 명 증가하였는데, 전체 취업자 수 증가가 47만 2천 명인 것을 고려하면 공공행정 부문 취업자 수는 오히려 감소함.
- 수출 호조 등으로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각각 11만 8천 명, 9만 6천 명 증가하였으며, 복지 서비스 확대 등으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취업자 수도 전년동월대비 각각 18만 6천 명, 8만 2천 명 증가함.
- 상용직 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62만 7천 명 증가하여 증가세가 유지되었으며, 자영업자는 5만 3천 명 감소하면서 감소세가 지속됨.

(6월 고용동향, 통계청, 7/13)